

개신교 한문서학서 『덕혜입문(德慧入門)』의 국내 수용과 번역 양상 탐구

이고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한국문화학 전공
2bthebridge@gmail.com

서신혜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부교수, 국문학 전공
sh2448@hanyang.ac.kr

- I. 머리말
 - II. 한문본 『덕혜입문』의 국내 유통과 활용
 - III. 언더우드 한글역본의 저본 추정
 - IV. 언더우드 한글역본의 변화 양상
 - V. 언더우드 한글역본의 한계
 - VI. 맺음말
-

I. 머리말

『덕혜입문(德慧入門)』은 중국에서 활동한 선교사 그리피스 존(Griffith John 楊格非, 1831~1912)이 그의 조사(助事) 셴즈싱(沈子星, 1825~1887)과 함께 저작한 개신교 서학서 중 하나이다. 중국에서 발행된 수많은 한문 서학서 중 『덕혜입문(德慧入門)』은 국내에서도 많이 유통되고 활용된 책으로, 초기 개신교회사에서 자주 언급된다. 중국 전도문서 중 그 영향력 면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였다.¹

그간 이 책에 대해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다. 옥성득이 이 책을 소개²한 이래 이고은, 박혜미, 오주철이 저자 그리피스 존과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임다영은 이 책에 담긴 한자음에 대해 연구했다.³ 또 이 책의 한문본 판본연구가 최근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이 책의 존재와 내용에 관심을 두고 그리피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0427).

- 1 Alexander Kenmure, "The Ten Best Christian Books in China," *The Chinese Recorder*, July 1893. 이 기록에 의하면 1위 천도소원, 2위 장원양우상론, 3위 천로역정이었다.
- 2 Sungdeuk Oak, "Chinese Protestant Literature and Early Korean Protestantism" in *Christianity in Korea*, Robert E. Buswell and Timothy S. Lee ed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6, pp. 80~84.; 옥성득, 『한국 기독교 형성사: 한국 종교와 개신교의 만남 1876-1910』(새물결플러스, 2020), 575~579쪽.
- 3 이고은, 「한·중 기독교 지식의 생산 및 유통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9) 중 IV장; 박혜미, 「초기 기독교 자료 해제: 『덕혜입문(德慧入門)』(1915)」, 『한국기독교문화연구』 제13집(2020); 오주철,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전도문서로 소개된 『덕혜입문(德慧入門)』에 나타난 교리사적 연구」, 『동서신학』 제3권 1호(2021); 임다영, 「『스만필지』와 『덕혜입문』의 한자음 표기 연구」, 『국어학』 제102집(2022), 123~155쪽; 임다영, 「『덕혜입문』의 판본별 대역어 비교 연구」, 『대동문화』 제120호(2022), 105~133쪽.
- 4 이고은·서신혜, 「그리피스 존 『德慧入門』의 판본 변화」, 『장서각』 제48호(2022), 231~252쪽.

존의 사상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원문이라 할 수 있는 그리피스 존의 한문본 대신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원두우, 1859~1916)가 번역한 국역본을 대상으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번역과정에서 현지화를 위해 텍스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므로, 언더우드 번역본으로 그리피스 존의 사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그리피스 존의 초간본(1876)을 현대 한국어로 완역한 『덕혜입문』⁵이 출간되어 번역본의 차이를 쉽게 비교해볼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 『덕혜입문(德慧入門)』의 초간 이후 판본들이 어떻게 변화하여 활용되었는지 밝혀낸 선행연구⁶의 연장이다. 앞선 논문에서는 이 책의 중국에서의 변화상을 논의했다면, 여기서는 우리나라에 유통된 사례들을 고찰하고, 나아가 언더우드가 번역에 사용했던 저본이 어떤 판본이었던지도 추정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리피스 존의 한문본과 언더우드의 한글역본을 비교하여 같고 다를 것을 정리하도록 한다. 이같은 내용을 정리하고 나면 언더우드 역본의 현지화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읽힌 한글본 『덕혜입문』이 어떤 내용을 강조하며 번역되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II. 한문본 『덕혜입문』의 국내 유통과 활용

먼저 중국에서 발행된 『덕혜입문』 한문본의 판본 변화에 대해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덕혜입문』 초간본은 총 17장이었으나, 1882년본에서

5 그리피스 존(저), 김현우·서신혜·이고은(역), 『덕혜입문』(동서지행포럼, 2022).

6 이고은·서신혜, 앞의 논문.

한 장을 추가하여 총 18장으로 확장하고, 우주의 이치를 설명한 4장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표1 참고). 1887년본에서는 성경의 대지를 설명한 15장을 대폭 보강하고, 글자나 구문 수준의 수정도 상당히 많이 하였다. 그 이후로 1890(상제판), 1897(상제판, 천주판), 1907(신판), 1908(상제판), 1909년본(신판) 등 다양한 판본⁷이 나왔으나, 1887년본에서 내용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채 각 판본의 신명만 상제-성신(上帝-聖神), 신-성령(神-聖靈), 천주-성령(天主-聖靈) 등으로 교체했을 뿐이다. 따라서 한문본은 1887년 판본에서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1- 『덕혜입문』 1882년본 목차⁸

1장 만물의 근본을 총체적으로 논하다 總論萬物之本原
2장 만물 근원에 대한 오류 변증 辨萬物本原之謬
3장 만물의 원소를 대략 논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밝히다 略論萬物之原質以彰上帝之經綸
4장 하늘과 땅의 대국을 총체적으로 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다 總論天地之大局以見上帝之尊榮
5장 만물이 각기 그 마땅함을 얻은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萬物各得其宜以顯上帝之仁愛
6장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上帝惟一
7장 하나님의 호칭 上帝之稱
8장 하나님의 몸 上帝之體
9장 예수는 참 구세주이시다 耶穌爲救世眞主
10장 속죄의 방법 贖罪之法
11장 거듭남의 길 重生之道
12장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信者得救
13장 다시 사는 이치 復生之道(1882년본 이후 추가된 내용)
14장 성경의 요지를 설명하다 論聖經大旨
15장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본분을 대략 논하다 畧論聖經教人之本分
16장 믿는 자가 늘 지켜야 할 법규와 금지하는 일 奉教者常守之規及禁行之事
17장 믿는 자가 얻는 참복 信者所得之眞福
18장 사람들에게 회개를 권하다 勸衆悔改

7 『덕혜입문』 한문본의 다양한 판본은 본 논문 표2 참고.

8 이고은·서신혜, 앞의 논문, 236~237쪽.

그렇다면 한문본 『덕혜입문』은 언제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어떻게 활용 되었을까? 또 그때 몇 년도 판본이 유입되었으며, 어느 판본이 주로 활용되었을까? 이 책의 국내 유입에 대해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덕혜입문』을 국내 최초로 유통시킨 사례였을 것으로 보인다.

1883년 癸未年 長淵 松川洞에 移住하게 된지라 잇새에 白氏는 심양에 드러가 라목스의게 受洗하고 매서직분을 받고 조선 경성에 移居하시고, 上京하란 下書를 받고 上京하니 맞춤 그때 심양으로부터 칙상즈가 淸商便으로 비밀이 나온지라 新約全書와 덕혜입문 등서를 가지고 下來하여 ……⁹

이것은 초기 한국장로교회 목사 서경조(徐景祚, 1852~1938)가 남긴 기록으로, 그와 그의 형 서상륜(徐相崙, 1848~1926)은 초기 한국 개신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인용문에서 ‘백씨(白氏)’란 그의 형 서상륜을 지칭하는데, 그가 심양(선양)에서 존 로스(John Ross)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은 뒤 서울로 가서 로스가 보내준 『신약전서』와 『덕혜입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상륜은 1882년 10월에 로스에 의해 영국성서공회 권서 자격으로 의주와 서울에 파견되었으며, 1883년에는 서울 창동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때 서적은 청나라 상인과 뮐렌도르프의 중개로 전달되었다.¹⁰ 아직 『덕혜입문』이 우리말로 번역되기 전이었으니 여기서 언급된 『덕혜입문』은 한문본이다. 그러므로 문헌 기록상 이 책이 국내로 유입된 가장 이른 시기는 1883년이고, 유입 시기로 가늠해 볼 때 당시 들어온 판본은 1882년본 혹은 초간본(1879)이다.

9 서경조, 「徐景祚의 信道와 傳道와 松川教會設立歷史」, 『신학지남』(조선예수교장로회 신학대학, 1925).

10 옥성득·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대한성서공회, 1993), 96쪽 각주 24; 옥성득, 앞의 책, 529쪽;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2011), 114쪽.

이렇게 국내로 유입된 『덕혜입문』을 비롯한 한문 소책자와 『신약전서』를 읽은 중류층 또는 상류층 한국인들은 의주와 서울 지역에서 자생적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나중에 이들을 발견한 언더우드와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 점을 놀랍게 여겼다¹¹는 기록도 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초기에 출간한 소책자와 그의 행적에서도 『덕혜입문』의 국내 유입과 판본에 관하여 추정할만한 내용들이 있다. 언더우드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그의 어학교사였던 송순용(宋淳容, 연대 미상)과 함께 한영-영한자전을 편찬하여 1890년에 발간했다. 하지만 한글성경번역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전도와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교리서가 시급했기 때문에, 이전부터 사전편찬과 별도로 한문 소책자를 계속 번역하고 있었다. 그 결과 1896년까지 언더우드가 번역 발간한 서적은 그 종류가 16종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¹² 예를 들어 『권중회개』(1891), 『중생지도』(1893), 『신자소득지진복』(1893) 등이 16종에 포함되는데, 이 책들은 앞의 표1에서 제시한 목차로 알 수 있듯이, 『덕혜입문』의 18장, 11장, 17장에 해당한다. 요컨대 1891년 이전에 언더우드가 『덕혜입문』을 입수하여 분장활용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덕혜입문』을 비롯하여 언더우드가 번역한 책 다수는 중국에서 사역 중이던 그리피스 존의 저술이었다. 언더우드가 한문 서적을 입수한 경위는 중국에 있던 선배 선교사들과의 관계망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런던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와서 영국성서공회의 북중국지부 총무를 맡고 있던 에반 브라이언트(Evan Bryant, 1839~1918)가 1888년 한국을 방문하여 언더우드와 함께 지냈다. 이 둘은 나중에 중국을 여행하기로

11 옥성득, 앞의 책, 530쪽.

12 이고은, 「번역과 선교: H.G.언더우드의 중문 기독교문헌 번역(1886-1896)」, 『한국학연구』, 제62집(2021), 147~148쪽 표 참고.

계획하기도 한 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¹³ 에반 브라이언트는 그리피스 존과 같은 런던선교회 소속 선교사이며, 그리피스 존과 함께 한커우에서 동역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언더우드도 그리피스 존과 그의 저작들을 소개받고 입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에반 브라이언트의 방한이 1888년이었으므로, 당시 그가 몇몇 책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도 고려하면 언더우드가 이때쯤 『덕혜입문』을 입수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언더우드가 사용한 『덕혜입문』의 저본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논의할 것이다.

『덕혜입문』의 여러 판본이 우리나라에서 활용된 또 다른 증거가 있다. 우리나라 경매시장에 1897년 중국성교서회에서 간행한 한문본 『덕혜입문』이 나온 적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책 맨 마지막 장에 적힌 문구다.

이책은 예수교 책이니 보시고 리치를 더 자세히 알아 영원이 사는 복을 밟고
십거든 대구 남문안 미국 안목스 집으로 오시오 다른 요긴흔 책 쏘 잇습니다

여기서 ‘대구 남문 안쪽에 사는 미국 안목사’란 아담스(James E. Adams, 안의와, 1867~1929) 선교사를 말한다. 아담스 선교사는 1895년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소속으로 내한하여 1896년 11월부터 1924년까지 대구에서 활동했다.¹⁴ 아담스 선교사가 『덕혜입문』을 언제 활용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위 문구에 적힌 내용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다.

13 위의 논문, 150쪽.

14 김중순·김병희, 『겨자씨 속에 담은 천국: 대구, 경북 선교의 아버지 안의와』(소통, 200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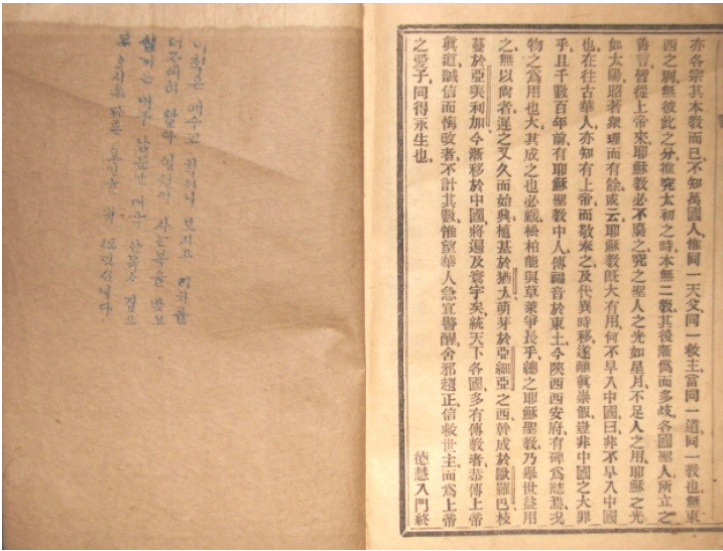


그림1- 1897년판 『덕혜입문』 뒷표지 내지에 적힌 아담스 선교사의 메시지¹⁵

『덕혜입문』의 1897년판 한문본이 우리나라에 유통되었다는 것, 한글 번역본이 출간되기 전에 한문본이 선교에 활용되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요긴한 책 또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책을 좋아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문, 한글 등 다양한 책을 구비해두고 판매 혹은 대여하는 방식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덕혜입문』의 또 다른 활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한성감옥서(漢城監獄署) 도서실을 들 수 있다. 1903년 1월, 미 감리회 소속 선교사 병커(Dalziel A. Bunker, 1853~1932)가 중국, 일본에 거주하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기증한 서적과 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서적들을 모아 한성감옥에 옥중전도문고를 설치했다.¹⁶ 이 문고에 어떤 책들이 포함되었고 대출되었는지를

15 https://www.hanauction.com/htm/off_auction_read.htm?id=5208&off_id=30&page=1&ac_num=248&PHPSESSID=fceee34496af159463f0cc51dee2e778(검색일자: 2022. 8. 13.)

기록한 「옥중도서대출부(獄中圖書貸出簿)」가 남아있는데, 여기에 한문본 『덕혜입문』이 포함되어 있다. 몇 년도 판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서실 설치 시기가 1903년이고 대출부가 1903년 1월 17일부터 1904년 8월 31일까지 기록된 것으로 볼 때¹⁷, 최소 1902년 이전에 간행된 『덕혜입문』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판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통된 『덕혜입문』 한문본 판본의 다양성을 가늠할 수 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1887년판이 소장되어 있고, 국회도서관, 동국대 도서관, 연세대 도서관, 충남대 도서관, 한국교회사연구소, (재)현담문고¹⁸에 1897년판이 소장되어 있으며, 장신대 도서관, 한양대 도서관, (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 1907년판이 소장되어 있다.¹⁹ 이처럼 1897년판이 다수 남아있는 것과 앞서 제시한 안의와 선교사의 활용 사례 및 한성 감옥소의 사례를 연결해 볼 때, 아마도 1897년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Ⅲ. 언더우드 한글역본의 저본 추정

언더우드 한글역본의 저본을 추정하기 전에 먼저 언급할 것이 있는데, 언더우드 외에 다른 선교사들도 이 책의 번역을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16 대한기독교서회, 『대한기독교서회 창립130주년 기념 화보집』(대한기독교서회, 2021), 65쪽.

17 유춘동, 「한성감옥서의 <옥중도서대출부> 연구」, 『서지연구』 제40권(2012), 103~126쪽.

18 <http://www.adanmungo.org/>

19 이고은·서신혜, 앞의 논문, 232쪽.

1899년 조선성교서회 연례보고서에 '1898년 4월 4일에 덕혜입문(The Gate of Virtue and Wisdom)의 한글 번역본 원고를 출간 심사위원회에 넘겼다'는 기록이 있다.²⁰ 번역자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고, 실제 심사 후에 출간이 결정되었는지 혹은 출간되었는지에 관한 이어지는 기록은 없다. 또, 미국 북장로교 한국지부의 1902-1903년 보고서에 스왈른(William L. Swallen, 1859~1954)이 'Gate of Wisdom and Virtue'를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다²¹고 기록되었다. 이 번역을 완성하여 출간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어지는 기록은 없다.²² 이로 보아 『덕혜입문』은 우리나라 초기 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인쇄되어 출간된 것은 1890년대에 이루어진 언더우드의 소책자 번역본과 1915년에 출간된 완역본이므로, 이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제 언더우드 한글역본의 저본을 추적해 보자. 앞장에서 설명한 대로 언더우드는 한문본 『덕혜입문』 중 일부를 한글로 번역하여 소책자로 출간했다. 『권중회개』(1891), 『중생지도』(1893), 『신자소득지진복』(1893)이 그것이다. 그러니 이들 소책자는 1891년 이전에 간행된 한문본 『덕혜입문』을 저본으로 했다는 말이다.

최근 이해원은 언더우드가 분장 번역한 『권중회개』가 『덕혜입문』이 아닌 『진리팔편(眞理八篇)』(1880)²³을 저본으로 했다고 지적한바 있다.²⁴ 참고로 『진리팔편』은 그리피스 존이 『덕혜입문』에서 네 장을 뽑고, 또 다른

20 *Annual Report of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1899, p. 8.(이해원, 「조선성교서회 초기 간행물에 대한 재고찰」, 『한국교회사학회지』 55(2020), 514쪽에서 재인용.)

21 "Report of the Editorial Committee," *Minutes and Reports of the Eighteen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CUSA*, 1902, pp. 31~34.

22 이에 관해서는 이고은, 앞의 논문(2021), 158~159쪽 참조 바람.

23 호주 국립도서관(<https://www.nla.gov.au/>) 소장. 온라인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

24 이해원, 「H.G.언더우드의 韓譯 교리서를 통해 살펴본 기독교 용어의 동아시아 유통」, 한국기독교역사학회 402회 학술발표회, 2022.4.2, 8~9쪽

자신의 책 『천로지명』에서 네 장을 뽑아서 합친 책으로,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⁵ 이해원의 논리는, 그리피스 존이 『덕혜입문』의 마지막 장 「권중회개」 앞부분에 4행을 추가해서 『진리팔편』의 8장 「회개위요」를 만들었는데, 이때 추가된 4행이 언더우드 번역본에 보이므로, 언더우드 역본이 『진리팔편』을 저본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이다. 옳은 지적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언더우드가 그 장 제목을 「회개위요」라 하지 않고 「권중회개」라 한 점이다. 내용 면에서는 기존 『덕혜입문』에 있던 「권중회개」보다 4줄을 덧붙인 『진리팔편』의 「회개위요」가 더 좋다고 판단했지만, 그 제목으로는 「권중회개」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언더우드가 『진리팔편』이라는 책과 더불어 『덕혜입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래 제목 「권중회개」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더우드가 분장 번역했던 또 다른 소책자 『신자소득지진복』(1893)은 『덕혜입문』에 포함되지만 『진리팔편』에는 없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언더우드가 『권중회개』(1891)를 출간하던 시기에 이미 『덕혜입문』 한문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1891년 이전에 발행된 판본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언더우드는 1915년에 『덕혜입문』 전체를 한글로 번역한 책을 조선예수교서회에서 발행했다.²⁶ 이 한글완역본의 저본은, 내용으로 볼 때 1887~1890년 사이에 발행된 것이다. 이 역본에는 1882년본에서 추가된 13장 「다시 사는 도 復生之道」와 더불어 4장에서 대폭 추가된 내용이 포함되어

25 「상제진리(上帝眞理)」, 「만유지본원(萬有之本原)」, 「천지시대국(天地之大局)」, 「화학기략(化學紀畧)」, 「구세진주(救世眞主)」, 「중생지도(重生之道)」, 「부생지도(復生之道)」, 「회개위요(悔改爲要)」 순이다.

26 이듬해 1916년에 언더우드가 사망했고, 게일 선교사가 언더우드 번역본을 수정하여 1927년에 같은 출판사에서 다시 펴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언더우드 역본으로 논의를 한정한다. 언더우드-게일 역본 간 비교연구에 관해서는 각주 35, 36 참고.

있으며, 1887년본 14장에 대폭 추가된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언더우드가 『덕혜입문』 중에서 일부를 분장하여 소책자로 번역하여 출간했는데, 그 간행연도가 1891년부터 시작하므로 언더우드가 그 이전 판본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한문본 판본마다 신호칭이 달랐던 점을 고려한다면, 언더우드 번역의 저본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된 1887년본은 아니다. 다소 복잡한 논의를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 아래 표2를 인용한다.

표2-『덕혜입문』 판본별 발행, 인쇄 주체 표시 및 신명 사용 현황²⁷

출간년도	발행주체	인쇄판	사용한 신명
1879		上海美華書館印	上帝판(聖神)
1882	漢口聖教書局印發		上帝판(聖神)
1887	中國聖教書會印發	上海美華書館鉛板	眞神판(聖靈)
1890	華北書會印發	福州美華書局活版	上帝판(聖神)
1897	中國聖教書會印發	上海文華書館擺印	天主판(聖靈)-연세대
			上帝판(聖神)-국회도서관
1907	中國聖教書會印發	上海美華書館擺印	神판(聖靈)
1908	華北書會印發	上海商務印書館代印	上帝판(聖神)
1909	中國聖教書會印發	上海美華書館擺印	神판(聖靈)

한문본 『덕혜입문』은 1887년본 이후로 내용이 확정되었고, 오직 신명만 달리하는 판본이 여럿 발행되었다. 중국 내 여러 지역의 출판사에서 『덕혜입문』을 재발행할 때 각 지역 선교사들의 성향에 따라 신명을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이다.²⁸ 표2에서 보이듯, 대체로 1위 하나님과 3위 하나님²⁹의 명칭을 ‘上帝-聖神’, ‘眞神-聖靈’, ‘神-聖靈’, ‘天主-聖靈’으로 표기했다. 한문

27 이고은·서신혜, 앞의 논문, 245쪽.

28 이고은·서신혜, 앞의 논문, 244~246쪽.

29 참고로 1위-성부, 2위-성자, 3위-성령 순이다.

초간본이나 1882년본에서 3위 하나님을 ‘聖神’으로 쓴 것과 달리, 1887년본에서는 ‘聖靈’으로 표기했다.³⁰ 그런데 1915년에 간행된 언더우드 역본은 1위 신명을 우리나라 말로 현지화하여 ‘하느님’으로 썼고, 3위를 ‘성신’으로 썼다. 그러므로 언더우드 역본은 1887년 이후 판본 가운데 ‘상제-성신판’을 저본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언더우드가 『덕혜입문』을 처음 분장 발행했을 때는 신명으로 ‘하느님’ 이 아니라 “상제(上帝)”를 사용했다. 언더우드가 1890년에 발행한 한영사전에는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없고, “상제(上帝)”를 “a word used of God”이라 하였다. 또 1891년에 『상제진리』라는 제목의 그리피스 소책자를 발행했던 바가 있으므로, 언더우드는 내한 초기에 그리피스 존의 영향을 받아 ‘상제-성신’의 신명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더우드 한글역본의 저본이 어떤 판본이었는지 논의하기 위해 본문 14장 「성경의 요지를 설명하다 論聖經大旨」에서 사례를 제시한다.

초간본, 1882년본: 以下凡二十二卷, 乃使徒保羅彼得雅各約翰猶大五人, 感於聖神, 達知各教會之書.

1887년본: 第五卷以下, 計有二十二卷, 使徒保羅彼得雅各約翰猶大五人, 感於聖靈, 達知各教會.

1897년본: 第五卷以下, 計有二十二卷, 使徒保羅彼得雅各約翰猶大五人, 感於聖神, 達知各教會.

1915년 역본: 데 오권 이하로는 이십 이권이 잇스나 스도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유대와 다섯 사람이 성신의 감화를 넘어 여러 교회에 편지하야 알게 할 글이라

30 국내에서 신명이 ‘하느님’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관해서는 옥성득, 앞의 책, 제1장 참고.

이것을 보면 언더우드 역본의 번역 양상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로, 언더우드 역본은 한문본을 어순과 단어까지 그대로 따르며 축지(逐字)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한 특성은 본문 전반에서 나타난다. 둘째, 신명에 따라 구분되는 판본을 고려할 때, 언더우드 역본은 1887년본 이후 발행된 상제-성신판을 저본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인용문 밑줄 친 부분 참고).

언더우드 한글역본의 저본을 좀 더 특정하자면, 1890년본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단서가 있다. 초간본 「서(序)」의 첫 문장은 '孔子曰 四海之內, 皆兄弟也'로, 1882년본과도 동일하다. 그런데 1887년본에서 '공자왈(孔子曰)' 대신 '논어운(論語云)'으로 바뀌었다. 사실 이 부분은 『논어』, 「안연」 5에 나오는 구절인데, 공자(孔子)가 한 말이 아니라 그의 제자 자하(子夏)가 사마우(司馬牛)의 말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한 오류를 인식했는지, 1887년본 이후부터 '論語云'으로 수정되었고, 1897년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유독 1890년본(華北書會印發, 福州美華書局活版)의 「서」는 '子夏曰'로 시작하고, 언더우드 역본이 이와 동일하게 '즈하 곶으딘'로 시작한다. 분명 '공자'도 '논어'도 아닌 '즈하'라 하였고, '닐으딘(云)'³¹이라는 표현 대신 '곶으딘(曰)'라 했으니, 언더우드 역본의 저본은 1890년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외에 더 이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정리하자면, 언더우드 한글 번역본은 한문본 『덕혜입문』의 판본 변화에 따라 1887년본 이후 추가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는 사실과 그가 '성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1887년본을 제외하고 그 후에 나온

31 언더우드역본은 '云'을 '닐으딘'로 번역했다. 예컨대 2장만 살펴봐도 '朱子云, 太極 只是一個實理'을 '쥬즈가 닐으딘 태극은 다만 일기 진실흔 리치라' 하고 로 번역했다. 반면 '朱子曰, 吾之體, 即天地之氣.'라는 부분은 '쥬즈 곶으딘 내 테는 곶 던디의 기운이오'라고 번역하여 云과 曰을 구분하여 번역했다.

‘상제판’ 『덕혜입문』을 저본으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문본과 한글역본을 비교하려면 현전하는 한문본 중 1890, 1897, 1908년 상제판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IV. 언더우드 한글역본의 변화 양상

이제 한문본과 한글역본을 비교하여 1915년 언더우드 한글역본 『덕혜입문』만의 내용 특성을 살펴보자. 여기서 원문-번역문을 대조하며 번역 양상을 논의할 때 원문의 기준으로 한문본 1897년본을 사용할 것이다. 1887년 이후 발행된 한문본 중 1897년본이 우리나라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서 논의한 대로, 언더우드 역본의 저본은 ‘상제판’이어야 한다. 따라서 연세대 도서관에 소장된 ‘천주판’ 1897년본은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언더우드는 한문본 『덕혜입문』의 모든 장을 번역하였고, 내용에서는 한 문장 혹은 한두 구절을 삭제하였을 뿐 단락 단위로 삭제한 것은 거의 없다. 또 한문본에는 없지만, 언더우드가 약간의 설명을 덧붙인 곳도 있다. 언더우드가 번역본을 내면서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문본 『덕혜입문』이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쓰이다 보니 중국인이나 중국을 대상으로 지칭하는 용어가 많은데, 역본에서는 그것을 ‘중국과 조선’으로 혹은 ‘온 세상’으로 바꾸어 조선의 독자들을 배려하였다. 예를 들어 「서」를 보자.

1897년본: 西人遠離本國, 險歷重洋, 置生死於度外, 旅居中國, 播揚此道, 無非篤同胞之愛, 振興人國, 俾衆脫罪而得永生也.

1915년 역본: 서국 사람들이 널니 본국을 썬나 여러 험흔 바다를 지나며
스싱을 도라보지 안코 중국과 조선까지 와서 이 도를 전하야 퍼치니 막비
동포의 듯허운 스량이오 님의 나라를 잘 되게 하며 모든 빅성들노 다 죄를
벗고 영칭을 엇게홈이라

언더우드 역본은 한문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서 ‘旅居中國’이라는 원문을
‘중국’이라고만 번역하지 않고 ‘중국과 조선’이라고 채워 넣어 우리나라
독자들을 위한 책으로 만들었다. 이어지는 곳에서도 이렇게 썼다.

1897년본: 傳教者, 非獨在中國一方, 乃總五大洲皆有之.

1915년 역본: 전도하는 사람이 비단 한곳에만 잇는거시 아니오 곳 온세상에
다 잇는지라

한문본에 ‘中國一方(중국 한 곳)’이라고 쓴 곳을 언더우드 역본에서는
‘한 곳’으로, ‘五大洲(오대주)’를 ‘온 세상’으로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서」 마지막 부분에서 “양격비는 스스로 서문하노라.”라는 문장
뒤에 “지금 조선도 이 책을 번역하야 출판하노라”는 문장을 추가하였다.
이처럼 언더우드 역본은 본문 곳곳에서 ‘중국’ 독자를 향해 쓰인 부분을
수정하여 조선 독자들에게 전해지는 글로 읽힐 수 있게 했다.

둘째, 언더우드 역본은 대체로 한문본을 우직하게 직역하지만,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원문의 내용을 빼거나 추가 설명을 덧붙이
기도 했다. 예를 들어 5장 「만물이 각기 그 마땅함을 얻은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萬物各得其宜以顯上帝之仁愛)」를 보자.

1897년본 및 모든 한문본: 人雖有罪, 上帝之仁更顯. 卽降生聖子耶穌, 代人贖罪,
又賜聖神感化人心, 使之重活天良, 得享眞福於無窮也.

1915: 사름이 비록 죄잇스나 하늘님의 사랑하심이 더욱 나타나샤 그 외아들 예수그리스도를 세상 사름의게 주어 무릇 그리스도를 믿는 사름들노 멸망을 면하고 도로혀 영생을 얻게 하셧스니 그 세상을 사랑하심이 이렇듯 하시도다

모든 한문본에서는 이 문장이 ‘上帝’라 썼느냐 ‘眞神’ 혹은 ‘神’이라 썼느냐, 즉 신명만 다를 뿐 성부, 성자, 성령의 합작을 드러낸다. 이를 직역하면 ‘사람에게 비록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랑이 더욱 드러났다. 곧 성자 예수를 강생(降生)시켜 사람을 대신하여 죄를 속하고, 또 성령을 내려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그가 양심을 되살려 영원토록 참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이다. 그런데 언더우드 역본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다른 부분에서는 심하다 싶을 만큼 원문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직역한 점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의 차이는 언더우드의 의도를 담은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언더우드 역본에서는 예수가 ‘외’아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점을 추가했다. ‘외’라고 하였으니 그만큼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전부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한문본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를 ‘基督’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문장의 원문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다. 언더우드 역본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추가함으로써 가장 귀한 ‘하나뿐인’ 아들을 ‘구원자’로 주셨음을 강조하려 했던 의도가 드러난다. 또 원문의 ‘성령’ 부분이 생략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논리로 연결되었다. ‘又賜聖神感化人心, 使之重活天良(성령의 감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성품을 회복하게 한다)’는 문장을 생략하는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멸망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이 이렇듯 했다’라는 문장을 추가한 것이다. 언더우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성령의 존재와 역할을 제외하지는 않았다.³²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보다 단순한 도식이 전도하는 데 더 유용한 명제가 된다는 것을

고려한 듯하다. 또 이렇게 수정함으로써 이 문장은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셨다’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가 세상을 이렇듯 사랑하셨다’는, 서로 호응되는 구조로 변하였다. 이 장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남(顯上帝之仁愛)’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한글역본에서 강조된 내용은 매우 의도적이다.

언더우드의 의도를 드러내는 사례는 더 있다. 2장 「만물 근원에 대한 오류 변증(辨萬物本原之謬)」 부분이다.

1897년본: 夫天地日月星辰等, 既皆屬氣, 不能自主, 自動, 必有一神, 主宰之, 運動之.

1915년 역본: 대더 텃디 일월 성신이 임의 다 기운에 부허스매 능히 주췌 주동호지 못호니 반드시 흥 온전호 지혜와 온전호 권능의 신이 잇서 주적호시며 운동 호시느니라

한문본에는 ‘一神(한 신)’이라고만 하였으나, 언더우드 역본에서는 ‘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권능의 신’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것은 조선 독자들의 종교성을 고려할 때 기독교의 하나님을 신(神)으로 제시할 경우 귀신과 같은 존재로 여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이런 식의 의도적인 추가는 다른 곳에서도 보인다. 다음은 4장 「하늘과 땅의 대국을 총체적으로 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다(總論天地之大局以見上帝之尊榮)」 중 일부이다.

1897년본: 天地萬物, 原上帝所造, 此上帝乃獨一無二, 至大主宰, 普天下萬國之人民, 所當崇奉而頌美之也.

32 예를 들어 1915년 역본 뒷부분에 덧붙인 ‘네 가지 기도’ 마지막에 ‘성령의 감화’가 정확히 언급된다. ‘이 우에 기록호 기도호는 법은 [...] 곳 성신의 감화를 넘어 기도함이니 기도가 각각 그 새며 그 곳이며 그 일을 인호야 믿음티로호면 길며 짚은거슨 상관치 말거시라’라 하였다.

1915년 역본: 턴디 만물이 다 하느님께서 만든 것스때 하느님을 힘입어 있는 것이라 하느님은 곧 능히 못히심이 업스시며 아지못히심이 업스시며 게시지 아인 곳이 업스신 신이시며 홀노 하나이시고 둘이 업스신 대주지 일만 사람의 하늘 아버지시니 너른 턴하 만국 인민들은 다 맛당히 놉혀 빳드러 찬송홀디어다

이 부분은 초간본에 없다가 1882년본부터 추가되어 이후 모든 한문본에 다 들어 있는 대목이다. 1897년본을 기준으로 한문본과 한글역본을 비교해 보면, 언더우드는 밑줄 친 부분을 추가해 넣었다. ‘天地萬物, 原上帝所造(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원문 뒷부분에 그것이 ‘하나님을 힘입어 있는 것’임을 덧붙여 강조했을 뿐 아니라, ‘此上帝乃獨一無二, 至大主宰’(이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대주재이시다)라는 원문에 ‘전능, 전지, 무소부재’ 하시다는 것을 추가해 강조했다. ‘普天下萬國之人民, 所當崇奉而頌美之也’(은 천하 사람이 마땅히 찬송할 분이다)라는 원문에는 ‘모든 사람의 하늘 아버지’라는 구절을 덧붙여 더욱 강조하였다. 이것 역시 언더우드의 지향점, 언더우드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근거가 무엇이었던가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셋째, 언더우드 역본은 ‘실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즉 전도와 신앙생활을 위한 안내를 강화 및 추가하였다. 다음은 18장 「모든 사람들을 권하여 회개하게 함이라(勸衆悔改)」부분에서, 하늘나라 문은 회개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 뒤 이어지는 부분이다.

1897년본: 悔改有五意, 一覺己罪, 二認己罪, 三不容己罪, 四憂愁前罪, 五後必離罪. 悔與改相輔而行, 恥既往之罪, 謂之悔, 遷當行之善, 謂之改. 人不敬上帝, 而反敬偶像, 罪大無比. 聞上帝救人之道而不信, 反信邪教邪事而行之, 皆罪也, 宜速改也. 此邦人士, 請細玩聖經, 得其真解, 而崇奉此教, 破除積習, 行在光中爲美也.

1915년 역본: 회개라 홀는 두 글즈가 포용홀 거시 미우 넙으니 무릇 진실한 므옴으로 회개홀는 자는 반드시 즈기 죄를 씨드르며 즈기 죄를 알며 즈기 죄를

용서치 못하며 그 임의 잇는 죄를 근심흔 후에야 곳 다시 죄에 범치 아닐
 막음을 작덩흔는지라 누웃침과 곳침이 서로 도아 형흔야 귀왕 죄를 숨허
 흔거시 닐은바 누웃침이오 맛당히 형홀 선으로 옴기느거시 닐은바 곳침이니
사름의 죄가 극히 만든거슬 이제 다 력력히 말홀수 업스나 오직 큰죄 잇는거슨 불가불
그르쳐 벌지라 이 큰 죄는 무엇시뇨 하나님을 공경치 아니하고 도로혀 우상 공경흔
 난거시 죄 크기가 비할디 업스며 하나님의 구원 흔는 도를 듯고도 밋지 아니하
 여 도로혀 사특흔 교와 사특흔 일만 밋고 형흔느거시 다 큰 죄니 다 맛당히
 속히 곳칠지라 이제 모든 사름을 권흔노니 성경을 즈세히 보아 그 춤 쫓을
 히석하야 싸힌 악습을 찢쳐 버리고 흔능의 도를 놉히 받들며 흔능의 계명을
좃치야 비로소 능히 이 세상에 죄악을 버셔버리고 오는 세상에 텃당의 복락을 영위히
누릴지라

한문본은 초간본이래 모든 판본에서 한두 글자의 출입만 있을 뿐, 위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데 언더우드의 번역은 밑줄 부분이 한문본과
 다르다. '회개라는 글자가 포용한 것이 매우 넓다'는 구절을 추가하고,
 한문본에서 회개의 다섯 가지 뜻을 구분해서 나열하는 대신, 해당 문단
 전체가 회개의 순서와 의미를 전달하도록 연결했다. 그래서 원문대로 '첫째,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요 둘째,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요……'라 번역하는
 대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죄를 깨달으며 자기
 죄를 알며……'하는 식의 논리로 연결하였다. 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라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이 큰 죄는 무엇이뇨?"와
 같은 설의법 문장을 추가하였다. 게다가 언더우드는 끝부분에 새로운 문장
 을 추가하여, 독자에게 회개의 내용을 설명하기보다 회개의 실제 방법을
 알게 하였다. 예를 들어, 한문본에 '行在光中(빛 가운데 다니는 것)'이라는
 모호한 부분을 '하나님의 도를 받들며 하나님의 계명을 좇아서 세상 죄를
 벗고 오는 세상 천당 복을 누린다'고 설명하였다. 또 원문에서 단순히

‘爲美(좋다)’라고 한 부분은 ‘오는 세상에서 천당 복을 누린다’고 번역하여 내세와 천당, ‘복’과 같은 개념을 강조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언더우드 한글역본이 신앙생활에서의 실천을 강조했다는 점은 아래의 17장 「믿는 자가 얻는 참 복(信者所得之眞福)」 마지막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1897년분: 諸如此類, 甚足以慰信者之心, 勉之聽主命, 守己分, 耐萬苦, 恒求得救至寶之靈魂.

1915년 역본: 이러흔 말삼이 성경에 만이 잇스매 진실로 좃히 맞는 사름의 믿음을 위로호여 쏘한 능히 하나님을 명을 힘써드러 주기의 본분을 평안히 직히며 홍상 만가지 괴롬을 견디여 하늘 길노 급히 다라가기를 나종식지 변치 안케호니

원문을 직역하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자기 본분을 지키며 온갖 괴로움을 인내하기에 힘쓰게 하며, 지극히 보배로운 영혼의 구원을 얻기를 위해 항상 간구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恒求得救至寶之靈魂(보배로운 영혼 얻기를 항상 구한다)”는 원문의 구절이 ‘하늘[하나님의] 길로 급히 따르기를 시종일관 되게’로 바뀌었다. 원문의 표현이 다소 모호한 데 비해 역본에서 ‘하늘 길을 급히, 변치 않고 따라간다’는 구절은 보다 분명한 행동을 요구한다. 언더우드 역본은 이렇듯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맥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원문을 수정하였다. 실제 전도와 목회 현장에서 책을 활용하고, 신자들이 책에서 실질적인 도움 얻는 것을 극대화하기를 원했던 듯하다.

V. 언더우드 한글역본의 한계

언더우드 역본은 최대한 원문을 직역하는 방식으로 한문본 전체를 번역했지만, 위에 제시한 사례처럼 조선의 독자를 위해, 언더우드 자신의 의도를 위해, 실천적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 원문 곳곳을 약간 가감해서 그리피스 존의 본래 서술과는 약간 다르게 수정하였다. 그런데 한문 원문을 직역한 부분에서는 오역이 상당수 발견된다. 이것은 외국인 선교사의 한계이기도 하고, 함께 일했던 조사(助事)들의 수준에 따른 한계이기도 하다.

참고로 언더우드의 한국어 실력은 동료 선교사들 중 탁월하다고 인정받았지만,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은 거의 전적으로 한국인 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문 독해가 가능한 번역조사가 서학서의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뒤, 언더우드와 함께 수정하는 식이었을 것이다.³³ 언더우드 자신이 1891년 보고서에서 한국인 번역자를 최대 5명까지 고용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그 자신이 일부를 직접 번역했다는 보고는 그로부터 20년 뒤인 1911년에서야 등장한다.³⁴ 물론 이때 그가 ‘번역했다’는 것은 ‘영어’를 ‘한글’로 번역했다는 표현일 것이고, 직접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덕혜입문』이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역을 언더우드가 다 인지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1915년에 발간된 한글역본 『덕혜입문』에 보이는 오역의 사례는 한자에 내포된 여러 의미 중에서 적절한 것을 찾지 못한 예, 그리고 맥락을 무시하고 글자 순서대로 번역하다가 오역한 예 등이 있다. 먼저 1장 「만물의 근본을

33 이고은, 앞의 논문(2021), 152~153쪽.

34 위의 논문, 154쪽.

총체적으로 논하다 總論萬物之本原」에서 사례를 제시한다.

1897년본: 人皆知天地人爲三才, 惜不知三才從何而有, 明知其非永有者, 究不知肇造者爲誰 (1장)

1915년 역본: 그 본릭 잇는거시 아닌줄은 분명히 아나 상고하면 창조호신이 가 뉘신줄을 아지못호니

해당 문장의 한문을 직역하면 ‘사람들은 모두 하늘·땅·사람이 삼재가 되는 줄은 알면서 애석하게도 삼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알면서도 만든 이가 누구인지는 끝내 알지 못한다’ 정도로 풀 수 있다. 그런데 언더우드 역본은 ‘究不知肇造者爲誰(만든 이가 누구인지는 끝내 알지 못한다)’를 ‘상고하면 창조하신 이가 뉘신 줄을 알지 못하니’라고 번역했다. 이는 앞 문장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究不知’를 축자적으로 번역한 것이다. 앞 문장의 내용까지 생각해 보면, ‘~은 알면서도 ~은 상고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래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한다.

1897년본: 太極之中, 沖漠無朕, 故謂之無極.(2장)

1915년 역본: 태극 가운데서 쥬지가 업는고로 닐은무극이라 함이니

이 문장의 원문은 ‘태극 가운데는 텅 비어 아무 조짐이 없으므로(沖漠無朕) 이를 일러 무극이라 한다’ 정도로 번역해야 하는데, 언더우드 역본에서는 ‘짐(朕)을 천자나 왕이 스스로를 낮추어 부르는 말로 생각하여 ‘주재(主宰)’로 오역하였다. 또한 ‘謂之無極’을 글자 순으로 의미를 풀어 ‘닐은(謂) 무극이라 함’이라 한 것도 오역으로 보인다.

전문 용어, 혹은 전문 지식이 부족했던 점이 드러나는 사례도 있다.

17장 「믿는 자가 얻는 참복 信者所得之眞福」의 사례이다.

1897년본: 生死之於人亦大矣哉, 而要緊關頭, 莫過於死. 儒言魂散, 釋言度亡, 暗謬之言也.(17장)

1915년 역본: 스침이 사람의게 큰 일이 되매 테일 요긴흔 머리가 이에서 더흔 일은 업느니라 유교에서 닐으기를 혼이 훗터진다흐며 불교에서 닐으기를 량탁이 망흔다흠은 다 어둡고 무리흔 말이로다

언더우드 역본에서는 ‘要緊關頭(요긴관두)’를 제일 요긴한 ‘머리’로 번역했다. ‘頭’가 머리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관두’는 중요한 것, 중요한 기로라는 의미의 속어로 쓰인다. 따라서 ‘요긴’과 ‘관두’를 겹쳐서 강조하는 맥락으로 쓴 것인데, 이를 ‘머리’로 번역하여 원문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 또 번역자는 불교 전문 용어 ‘제도(濟度)’를 이해하지 못하여 ‘釋言度亡’의 ‘도(度)’를 오역했다. 제도란, 중생을 고해에서 건져서 피안이 극락세계로 인도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망자의 혼을 제도한다’로 해석해야 할 것이나, 번역자가 불교 전문용어를 몰랐기에 바로 앞 구절에서 ‘魂散’을 ‘혼이 흩어진다’고 번역한 것과 같은 문장구조로 ‘度亡’을 번역하여, ‘량탁이 망흔다’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로 오역하였다.

마지막으로 오역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전문용어를 한글 고유어로 풀어 쓴 사례가 보이는데, 특히 과학 용어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아직 성립된 전문용어를 알지 못하였거나, 그 용어가 낯설어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19세기 중국과 일본에서 생물학, 화학, 천문학 등 서구과학문물의 신지식이 활발하게 번역되면서 한문 신조어가 생성되었으나, 조선은 1895년 갑오개혁으로 근대식 교육제도가 공식 도입되어서야 그러한 신지식의 유입과 번역이 이루어졌다. 『덕혜입문』의 한글완역본 출간이 1915년인데 그때까

지도 아직 서구과학문물 관련 용어가 우리나라에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신생 개념을 담은 한자어들이 언더우드 역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3장 「만물의 원소를 대략 논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밝히다(略論萬物之原質以彰上帝之經綸)」의 사례를 제시한다.

1897년본: 化學家非逞臆說 [...] 凡植物之花葉, 動物之骨肉 [...] 微妙——有愛惡之力, 相吸相拒之力, 並交感之力……

1915년 역본: 화학하는 집에서는 억설노 흥는거시 아니오...무릇 심은 물건에 꽃과 님과 동흥는 물건에 썩와 고기와 [...] 은미흠이 흥결궤치 스랑흥며 뤼위흥는 힘도 잇스며 서로 마시며 서로 막는 힘도 잇스며 쏘 서로 감동흥는 힘도 잇스니……

이처럼 오늘날 화학가(자), 식물, 동물, 소립자, 인력, 척력 등으로 정리되는 용어를 모두 한글 고유어로 풀어 '화학하는 집', '심은 물건', '동 흥는 물건' 등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해를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1927년 언더우드 사후에 게일이 언더우드 한글역본을 개정하여 출판했다. 이 두 역본은 새로 갱신되던 신학문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판본 간 차이가 크며, 따라서 당시 유입되던 신생 한자어의 국내 유입과 사회화 과정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³⁵ 『덕혜입문』의 우리말 번역을 주도한 언더우드와 게일은 모두 한영 및 영한 이중어사전 편찬과 성경 및 서학서 번역에 앞장섰던 인물들이었고, 따라서 이러한 신생 한자어의 유입과 정착을 주도하기도 했다³⁶는 점에서

35 임다영, 「《덕혜입문》의 판본별 대역어 비교 연구」, 『대동문화』 120(2022), 109쪽.

36 1915년 판본과 1927년 판본 비교는 위의 논문 참고. 덕혜입문 3~4장 과학 용어의 대역어에 관한 비교가 상세하다.

역본 간 비교도 중요한 연구이겠지만, 여기서 그 내용까지 다루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으므로 생략한다.

VI.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그리피스 존이 저술한 한문 서학서 『덕혜입문』의 우리나라 유입과 활용 양상을 살피고, 언더우드 한글역본의 저본이 무엇이었는지 살폈다. 또한 한문본과 언더우드 역본을 비교하여 언더우드 한글역본의 번역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한문본 『덕혜입문』은 1883년 이래 영국성서공회 권서로 활동했던 서상륜에 의해 서울과 의주 등 주로 중북부 지역에서 먼저 유통되었고, 대구를 포함한 남쪽 지방에서는 그보다 더 늦은 시기에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여러 도서관에 현전하는 판본의 수를 고려하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유통되었던 것은 1897년본이었을 듯하다. 언더우드는 1890년대 초반에 그리피스 존의 저술을 다수 번역하였고, 한권의 책을 분장번역하여 소책자로 발행하기도 하였는데, 『덕혜입문』도 이같이 분장하여 일부를 소책자로 발행하였다. 언더우드가 『덕혜입문』 전권을 완역해서 조선예수교서회에서 발행한 것은 1915년이었으며, 이 언더우드 역본은 한문본 『덕혜입문』에서 1887년 이후 대폭 보강된 4장, 15장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신명도 ‘성신’을 사용하였으므로 1887년 이후 발행된 상제판을 저본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국내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회도서관 소장 한문본 『덕혜입문』 1897년 상제판과

언더우드의 한글 번역본 1915년판을 비교하였다. 언더우드의 역본에서 나타나는 번역상 특징으로는 대체로 한문본을 축자적으로 번역하였으나 조선 독자들을 배려한 부분이 곳곳에 보이며, 그의 의도에 따라, 그리고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였다는 점, 따라서 한문본과 한글본의 내용과 지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제1위 성부 하나님에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모든 이들의 하늘 아버지’ 등으로 강조되었고, 전반적으로 전도 현장에서의 유용성과 신앙생활에서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번역된 점을 드러냈다. 번역과정에서 번역자의 한문 이해도에 의해 오역이 발생한 사례를 제시함과 더불어, 당시 국내에 유입되던 과학 관련 신생 한자어의 경우 한글 고유어로 풀어서 번역하는 경향이 나타남도 설명했다. 그러므로 『덕혜입문』에 드러난 그리피스 존의 신학적 사상이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면, 한글 역본과 한문본을 함께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그리피스 존이 쓴 한문본을 원문 그대로 번역한 역서가 출간되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그리피스와 언더우드 각각의 신학적 지향과 의도를 구별하여 명확히 설명하는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지속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楊格非, 『德慧入門』. 1879년판, 옥스퍼드 보들리안도서관 소장본.
_____, 『德慧入門』. 1882년판, 호주국립도서관 소장본.
_____, 『德慧入門』. 1887년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_____, 『德慧入門』. 1897년판, 대한민국국회도서관 소장본.
_____, 『德慧入門』. 1907년판, 한양대도서관 소장본.
존 그리피스(저), 언더우드(역), 『덕혜입문』. 1915년판, 대한민국국회도서관 소장본, 연세대도서관 소장본.

Kenmure, Alexander, "The Ten Best Christian Books in China," *The Chinese Recorder*, July 1893.

"Report of the Editorial Committee," *Minutes and Reports of the Eighteen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CUSA*, 1902.

2. 단행본

- 김중순·김병희, 『겨자씨 속에 담은 천국-대구, 경북 선교의 아버지 안의와』. 서울: 소통, 2009.
대한기독교서회, 『대한기독교서회 창립130주년 기념 화보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1.
옥성득, 『한국 기독교 형성사: 한국 종교와 개신교의 만남 1876-1910』.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옥성득·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존 그리피스(저), 김현우·서신혜·이고은(역), 『덕혜입문』. 서울: 동서지행포럼, 2022.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2011.

3. 논문

- 박혜미, 「초기 기독교 자료 해제: 『덕혜입문(德慧入門)』 (1915)」, 『한국기독교문화연구』 제13집, 2020, 263~273쪽.

- 서경조, 「徐景祚의 信道와 傳道와 松川教會設立歷史」. 『신학지남』, 평양: 조선예수교 장로회신학대학, 1925, 87~106쪽.
- 오주철,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전도문서로 소개된 『덕혜입문(德慧入門)』에 나타난 교리사적 연구」. 『동서신학』 제3권 1호, 2021, 49~101쪽.
- 유춘동, 「한성감옥서의 <옥중도서대출부> 연구」. 『서지연구』 40호, 2012, 103~126쪽.
- 이고은, 「한·중 기독교 지식의 생산 및 유통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_____, 「번역과 선교: H.G.언더우드의 중문 기독교문헌 번역(1886-1896)」. 『한국학연구』 제62집, 2021, 141~162쪽.
- 이고은·서신혜, 「그리피스 존 『德慧入門』의 판본 변화」. 『장서각』 제48호, 2022, 231~252쪽.
- 이혜원, 「H.G.언더우드의 韓譯 교리서를 통해 살펴본 기독교 용어의 동아시아 유통」. 한국기독교역사학회 402회 학술발표회, 2022년 4월 2일.
- 이효림, 「20세기 이전 중국어 성서 번역의 역사와 의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14호, 2019, 7~39쪽.
- 임다영, 「《스민필지》와 《덕혜입문》의 한자음 표기 연구」. 『국어학』 제102호, 국어학회, 2022, 123~155쪽.
- _____, 「《덕혜입문》의 판본별 대역어 비교 연구」. 『대동문화』 제120호, 대동문화연구원, 2022, 105~133쪽.

국문초록

『덕혜입문(德慧入門)』은 중국 한커우에서 활동한 선교사 그리피스 존(Griffith John 楊格非, 1831~1912)이 그의 조사(助事) 선즈싱(沈子星, 1825~1887)과 함께 저작한 개신교 서학서 중 하나이며, 국내에서는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859~1916)가 익명의 번역조사와 함께 완역하여 1915년 조선예수교서회에서 발행했다. 본 논문은 이 책이 우리나라에 유통된 사례를 고찰하고, 언더우드가 번역에 사용했던 저본이 어떤 판본이었는지 추정하며, 그리피스 존의 한문본과 언더우드의 한글본을 비교하여 그것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연구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 한문본 『덕혜입문』이 1883년 이래 주로 북중부 지역에서 먼저 유통되었고, 대구를 포함한 남쪽 지방에서는 그보다 더 늦은 시기에 유통되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언더우드 역본은 1887년 이후 발행된 상제판을 저본으로 번역되었으며, 대체로 축자적으로 번역하였으나 조선 독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언더우드의 의도에 따라, 그리고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내용이 추가 및 수정되었다. 번역자의 한문 이해도에 의한 오역이 발견되며, 당시 국내에 유입되던 과학 관련 신생 한자어의 경우 고유어로 풀어서 번역하는 경향도 보인다.

투고일 2022. 12. 19.

심사일 2023. 2. 1.

게재 확정일 2023. 2. 15.

주제어(keywords) 덕혜입문(The Gate of Virtue and Wisdom), 그리피스 존(Griffith John), 언더우드(Underwood), 선교사 번역(missionary translation), 서학(Western learning), 조선성교서회(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예수교서회(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Abstract

A Study on the Distribution and Translation of a Protestant Chinese Western Learning Book in Korea:
Dehuirumen(The Gate of Virtue and Wisdom)
Lee, Go-eun · Seo, Shin-hye

Dehuirumen(The Gate of Virtue and Wisdom) is a Western learning book written by Griffith John(1831~1912) and his assistant Shen Zixing(1825~1887). It was translated into Korean by Horace G. Underwood(1859~1916) aided by an anonymous assistant, and published by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in 1915.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stribution of this book in Korea, the edition selected and why it was selected for translation, and how the translation differs from the original text. As a result of this inquiry, it was discovered that the book was introduced to the northern and central parts of Korea in 1883 and later spread in the southern part. Underwood chose the *Shen* edition published later than 1887 and translated it as literally as possible but amended it for Korean readers. Furthermore, he added or adjusted the text to better suit his theological stance and make it helpful for Korean believers' practical use. There seems to be some misinterpretation caused by the translator's limited understanding of Chinese terms and the tendency toward descriptive translation for Chinese scientific neologism.

